

##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김명배 (송실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교회 사회참여의 역사·신학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신학적 배경

### III. 한국교회 사회참여 유형의 패러다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 패러다임(1970년-1987년)
2. '평화통일운동' 패러다임(1980년-2000년)

### IV.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의 역할과 그 한계

1.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의의와 한계
2. '평화통일'운동의 의의와 한계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2>

---

• ABSTRACT •

---

A Study on the Change of Paradigm of Korean Church Social  
Participation: From 1970 to 2000

Kim, Myung-Bae(Soongsil University)

Korean Christians have become indispensable in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by developing social participation campaigns in diverse sectors from the birth of the Yushin regime in the 1970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through the uprising of 6.10 in 1987. In particular, Christian intellectu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by criticizing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in several sector movements including anti - democratic democratization movement,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Christian progressive forces that adopte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missionary task in the 1970s under the Yushin regime began to recognize that democratization should be resolved in the 1980s. In the 1980s, the Christian progressive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a new paradigm of 'peaceful reunification'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the anti-humanitarian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way of social particip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the type of soci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Key words:** Korean Church, Social Participation, Paradigm, Human Rights, Peace, Unification

---

## I. 들어가는 말

해방 후 한국교회는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시작하여 유신체제의 종식에 공헌하였고,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완성하였다. 특히 1970년대는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의 제반 민주화운동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 속에서 연대활동을 펼쳐 나갔다. 특히 개신교 인사들이나 단체들은 이 시기의 일반 민주화 운동들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여 투쟁 하였으며 그 참여 범위도 다양하였다. 1970년대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들어와 군사정권 퇴진운동, 개헌운동, 재소자 인권보호운동, 강제징집 철폐운동,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주요 시국성명서 발표, 언론 자유화운동 등등에 이르기까지 한국개신교회는 실로 이 시기에 일어났던 '민주화와 인권' 운동들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한편,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선교적 과제로 삼은 기독교 진보세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진보진영은 1970년대 말 '선민주화냐 '선통일이냐'에 관한 방법론 논쟁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하여 통일은 민주화를 전제하고, 민주화는 통일을 전제함으로 이 둘을 끊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진보세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참여 방식에 있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사회학과 신학계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 역사

와 사회참여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나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와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신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소논문들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이 둘의 운동이 상호 유기적 상관성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연구 성과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회의 역사와 사회참여를 고찰하면서, 사회참여 유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와 평화통일운동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할과 의의 그리고 한계를 가지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2장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한국교회 사회참여 유형의 패러다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고, 4장에서는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의 역할과 그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 II. 한국교회 사회참여의 역사·신학적 배경

### 1. 역사적 배경

1960년대 말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속에서 경제 사회적 소외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산업화는 다수의 노동자 계층과 도시빈민층을 양산하였고, 동시에 그들의 궁핍화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 잠재된 계층간의 갈등은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1969년 3선 개헌과 1971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극

심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권은 전태일 분실 사건이후 기독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민중운동과 결합을 모색하였다. 야당인 신민당 또한 국회를 통해 경제정책과 분배논리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렇듯 당시의 여러 구조적 위기들이 학생, 재야, 야당을 통해 정치적 위기로 유입되어 박정희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다.<sup>1)</sup>

박정희 정권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71년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더욱이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평화 통일을 달성하려면 국민총화가 필요하고, 국민총화를 달성하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통치 구조를 탄생시켰다. 이 유신헌법은 간접선거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며, 중임제를 폐지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인 장기독재체제였다.<sup>2)</sup>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견인한 것은 한국교회의 신학자와 기독교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기독교청년학생, 젊은 목회자 그룹이었다. 특히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 그룹'은 직접 민주화운동에 헌신함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대

1)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서울:북코리아, 2009), 116-119.

2) 김명배, 위의 책, 119-121.

표적인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를 중심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기독교교수협의회’, ‘목요기도회’ 등 기독교 조직을 통하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NCCK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정치사회 참여를 이끄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기독교청년학생과 젊은 목회자 그룹은 민주화투쟁을 대중투쟁 차원으로 발전 전개시켰다. 이들은 대학과 교회의 종교서클과 교회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기도회와 강연회를 통해 대중선전과 반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1969년 말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이하 KSCF)을 결성하여 1970년대 초 ‘학사단 운동’, ‘선거참관인 운동’, ‘신앙수호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KSCF의 조직이 와해되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이하 EYC)를 조직하여 각 교단과 교회의 청년회와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까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sup>3)</sup>

그러므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개발독재가 낳은 노동소외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유신체제의 등장은 한국교회가 역사·사회참여로 나아가게 한 역사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도시빈민의 양산, 모든 사회문제의 정점에 놓여 있는 유신독재 등을 목도하면서 기독교 내 진보세력은 이전의 전도에서 벗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신학적 배경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사회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신학적 배경은 에큐메니칼 사회참여신학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세속화신학’, ‘토착화 신학’, 그리고 ‘민중신학’ 등을 들 수 있다. 1948년 암스텔담에서

3)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2년. 4월호, 67-68.

WCC가 결성된 후, 에큐메니칼 진영은 1952년 빌링겐 IMC의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sup>4)</sup> 빌링겐 IMC는 선교가 교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장(場)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 이 세상을 선교의 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보아,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선교의 범위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보아 ‘탈(脫)교회중심적 선교’를 주장하였다.<sup>5)</sup>

이러한 빌링겐 IMC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역대 WCC 총회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1968년 WCC 읍살라 총회는 60년대의 비인간화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예수그리스도를 ‘새 인간의 원형’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교회의 사회참여의 기초로 언급하였다.<sup>6)</sup> 더욱이 1969년에 열린 신앙과 직제 몬트리올 세계대회는 구조 악을 직시하고 이 구조 악에 대한 혁명을 더욱 과격하게 주장했는데, 특히 제 3세계가 더욱 혁명적 해방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이러한 WCC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함축하는 사회참여신학은 한국교회협의회(NCCK)와 그에 속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70,80년대 한국사회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신학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그 동력을 제공하여 주었다.

한편, 1972년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정권은 이를 반대하는 각계

4) 정성환,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서울:그리심, 2003), 29.

5)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576.

6) 이형기, 위의 책, 577.

7) Robert McAfee Brown, *Theology in a New Key*(Phil: The Westminster Press, 1978), 45;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tr. from the Spanish(1971) by sister Caridad India and John Eagleson(Orbis Books, 1973), 15. 읍살라 이후 WCC는 맑시즘(Marxism)등 사회학적 통찰을 기독교 신학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적절한 폭력까지 정당화 되었다. 1968년 읍살라 WCC가 남미의 ‘해방신학’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9), 135-136.

인사와 학생들을 대통령 긴급조치로 탄압하여 목회자와 교수,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3년 5월 20일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 신앙선언은 민중신학 태동의 동기가 되었다.<sup>8)</sup> 또한 민중신학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고도 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속에서 탄생하였다. 1970년대 초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야기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가난한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성서적 근거와 연결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수탈당하여 온 소위 ‘민중’들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논리에서 민중신학을 창출하였다.<sup>9)</sup> 그리하여 “민중신학”은 1975년 『기독교 사상』에 실린 서남동의 3편의 논문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sup>10)</sup> 1975년 3월 1일 민주인사들의 출옥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안병무가 “민족, 민중, 교회”라는 강연을 통하여 민중해방에 대한 신학적 기틀을 놓았다.<sup>11)</sup> 그리하여 민중신학은 ‘한국적 신학’의 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정치적 항거의 신학적 근거와 수단으로 봉사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에 1960년대 후반에 전래된 세속화 신학은 한국교회 민주화 운동과 사회참여의 한 조력을 담당하였다.<sup>12)</sup> 세속화 신학은 현대사회의 세속화와 종교의 역할의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8) 이형기, 『WCC, Vatican II, WARC 해방신학 및 민중신학이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참여』(서울: 성지출판사, 1990), 210.

9) 김인수, 『한국기독교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366.

10) 이형기, 『WCC, Vatican II, WARC 해방신학 및 민중신학이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참여』, 211.

11) 송기득, “민중신학의 정체,” 『1980년대 한국민중신학의 전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63.

12) 연규홍,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59.

직시하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과제를 찾고, 또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속화 신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비기독교인들과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산업화 정책에 의해 발생된 경제적 소외의 문제를 정치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대응하는 진보진영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sup>13)</sup>

### III. 한국교회 사회참여 유형의 패러다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 패러다임(1970년-1987년)

##### 1) 197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27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통치구조인 유신헌법을 통과시키자, 개신교 진보진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1973년 4월 22일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은 한국개신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신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3년 5월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이러한 일부 한국개신교인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재야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73년 12월 장준하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여 서명운동의 주동자들을 구속 연행하였다. 개헌서명운동이 탄압을 받아, 도시산업선교회 소속의 김경락, 이해학, 김진홍, 인명진 등 소장목회자들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들을 모두 긴급

13) 연규홍,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156.

14) 연규홍, 위의 글, 155에서 재인용.

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하여 갖은 고문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이렇게 성직자들과 기독교학생들이 구속되어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자, NCKK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진보진영은 단체별, 교단별로 각종 ‘인권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더하여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들을 ‘자생적 공산주의자’라 규정하고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80여명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찬국 교수 등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지도급 인사들과 KSCF의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NCKK와 그 가맹교단 그리고 단체들은 ‘목요기도회’를 시작하여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sup>15)</sup>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등 기독교계 인사들은 1974년 12월 25일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민주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유신체제 반대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기독교계 인사들은 이 기구에 참여하여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속하였다.<sup>16)</sup>

1976년에는 정부가 긴급조치 9호를 공포하자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힘을 합쳐 ‘신국교 합동 일치주간 기도회’를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함세웅, 이우정, 김승훈 등 개신교와 가톨릭을 중심한 20여명의 재야 인사들은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

1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 19, 174-75.

16) 김주환,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206.

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선언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목사, 신부 등 다수가 관계된 사건으로 70년대 후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이념적 인적 기틀이 되었다.<sup>17)</sup> 이 사건을 계기로 76년 말부터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위축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각계의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더불어 ‘한국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인권운동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윤보선, 문익환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발족하고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계승한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탄생시켜 유신체제의 극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여 갔다. 이 국민연합은 기독교계를 비롯한 재야, 사회 제 세력의 연대가 최초의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sup>18)</sup>

이러한 1970년대 한국교회 사회참여운동가 절정에 달한 것은 1979년 8월에 일어난 YH사건이었다. 정부는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YH무역의 여공들의 배후에 불순 용공세력인 도시산업선교회가 있다고 보고, 문동환, 인명진, 서경석 목사 등 산업선교회와 관련된 목사들을 구속하였다. 목회자들이 구속되자, 기독교계는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의 용공조작 정책에 정면 도전하였다. 결국 YH 사건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체명과 이로 인한 부마사태, 그리고 10.26으로 이어지면서 1970년대 기독교 인권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sup>19)</sup> 이처럼 1970년대 진보진영의 개신교회와 소

17) 김주한, 위의 글, 206;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69.

1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조사연구자료 19, 208; 김명배, 위의 글, 70.

19)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206;김명배, 위의 글, 70.

수의 지도자들은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 2) 1980년대 ‘민주화와 인권’ 운동

1980년대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운동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전개되었고, 그 출발점은 1980년 신군부에 대하여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이었다.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지역 개신교회는 5월 25일 범교회 차원의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시국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실상 개신교보다 율공회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 그 수습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개신교회와 교계인사들의 참여는 미미했고, 광주항쟁 직후 항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전개된 기독교청년협의회(EYC)를 비롯한 기독교청년학생들의 유인물 배포나 추모회 활동정도였다.<sup>20)</sup>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제 5공화국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계속되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협의회(KNCC)를 중심으로 한 인권수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사람들과 민주화 선두투쟁을 하던 학생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교회는 이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무림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등 고문과 용공조작, 재소자들의 처우개선을 제기한 박관현의 사망,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사망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기독교회(개신교와 가톨릭)는 군사독재정부에 인권유린의 중지를 요구하는 활발한 인권수호운동을 펼쳤다. 또한 1982년에는 부산 고신대 학생인 문부식 등에 의해 발생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반외세 자주화 운동으로 외연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

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VI, VII, VIII』 참조; 김명배, 위의 글, 70.

를 무참히 진압한 군부의 배후에 미국의 목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책임과 본질에 대한 의식을 상기시켰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제 5공화국 정권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개신교와 가톨릭의 반독재투쟁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였고, 한국교회협의회는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여 야당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1985년 2. 12 총선에서 승리한 재야와 야당세력은 ‘군부통치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때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은 1980년대 중반 개헌정국에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민통련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개헌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민중민주세력이라 주장하면서 개헌운동을 전개해 나갔다.<sup>21)</sup>

이때부터 한국개신교회의 진보진영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27명의 중앙위원들의 개헌 서명을 주도하자, 기장, 예장(통합), 감리교 등 3개 교단이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85년 3월 17일에는 한국교회협의회가 그동안의 개헌서명 운동에 서명한 1,050명의 목회자를 공개하였고,<sup>22)</sup> 한국교회협의회 가맹교단 뿐만 아니라, 비가맹교단들도 시국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등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민주헌법쟁취운동, 개헌서명운동, KBS-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CBS 기능정상화 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KNCC가 주도적으로 전개한 ‘CBS 기능정상화 운동’과 ‘KBS-TV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은 범시민 불복종 형태의 일종의 ‘대중적 항거운동’이자 ‘자유언론 쟁취투쟁’이었다.<sup>23)</sup>

21) 김명배, 위의 글, 71.

2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개헌과 민주화운동』, 39.

23) 김주환,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207; 김명배, 위의 글, 71.

1986년에 ‘군부통치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투쟁’의 와중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민적 분노와 교회의 저항을 결집시켜 ‘2.7 추모대회’와 ‘3.3 고문추방 민주화 대행진’을 진행시켰다. 이에 전두환은 4.13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현행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호헌조치를 선언하였다. 4.13 호헌 조치가 있자, 민주화 운동세력들은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대대적인 민주화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한국교회도 호헌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구국 단식 기도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함으로써 6월 민주항쟁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기독교회는 국민운동본부의 전국적인 투쟁지도 및 확산기능을 보완하고 또 투쟁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sup>24)</sup> 6월 항쟁 기간 중 개신교회는 전국적인 연락망과 조직망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집회에 직접 참여하였고, 성당이나 교회는 집회의 준비나 농성장소로 사용되었다.<sup>25)</sup> 이 기간 중 개신교의 각 교단과 지역 협의회, 각 노회들은 잇따라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거나 시국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6.10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시국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을 지켜오던 보수교단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도 4.13 호헌 조치의 철회와 언론자유, 인권탄압중지 등을 결의하고 시국연합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처럼 시국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친정부적인 태도를 보여 온 개신교 보수교단들도 6월 항쟁시에는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것이었다.<sup>26)</sup>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

24) 김주한, 위의 글, 208.

25) 『기사연 리포트』 2, 93. 6월 항쟁 기간 동안 각 지역별 투쟁의 지도부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교회나 성당들은 집회장소나 투쟁의 거점역할을 했다.

26) 『기독교신문』 (1987. 6. 28);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72.

게 되었다.

## 2. '평화통일운동' 패러다임(1980년-2000년)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선교적 과제로 삼은 기독교 진보세력은 점차 민주화를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진보진영에서 '선통일 후민주'냐 '선민주 후통일'이냐라는 방법론을 들고 대립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의 결과 이들은 "민주화의 성취는 곧 통일이며 통일의 성취 없이 민주화도 이를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민주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민주화는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이 둘을 끊어서 생각할 수 없다"<sup>27)</sup>는 것이었다. 또 하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기독교 진보진영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즉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에서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사독재가 근절될 수 없다는 인식과 군사정권 배후에 미국의 묵인 및 지원이 있었다는 인식이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일으켰던 것이다.<sup>28)</sup> 그리하여 기독교 진보세력은 통일운동을 민주화 운동보다 우선적으로 혹은 적어도 민주화운동과 병행하여 전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sup>29)</sup> 결국 한국교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27) 문익환, "민주회복과 민족통일", 씨알의 소리 75호(1978. 7-8), 26.;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서울:한국신학연구소, 2005), 222.

28) 박성준, "1980년대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에 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5), 455; 조순, 위의 글, 222.

29) 문익환, "7.4 공동성명 이후의 민족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서울:민중사, 1990), 388-392; 조순, 위의 글, 222.

## 1) 1980년대 ‘평화통일’ 운동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 분단의 극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과제를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화 없는 곳에 통일이 불가능하고, 통일논의 없는 민주화는 공허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인식은 분단구조 자체가 한반도의 근원적 악이며, 통일문제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선교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80년 처음으로 “통일은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천명하였고, NCK도 1982년 상설기구로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일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채택하였다. 뿐만아니라, NCK는 1985년 제 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을 통해 “한국교회가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였다.<sup>31)</sup>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WCC는 1984년 10월 말과 11월 초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협의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도잔소 보고서’는 교회의 통일운동에 이정표가 되었으며,<sup>32)</sup> 이후 한국교회 진보진영

30) 김정형, “한국교회 내 남남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복음으로 돌아가자”(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월례발표회, 2013. 4. 26), 6.

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편, 앞의 책, 13; 김병배,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서울: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3), 168.

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서울:민중사, 1990), 13-19. 1) 분단은 한반도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며 전쟁위협과 독재와 인권유린, 경제적 손실과 인간적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단의 극복이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2)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교회들에 영향을 미쳐 강대국들을 움직

은 세계교회와 연대 속에서 1989년까지 5년간 이 회의의 결과와 건의 사항들을 실천하였다.<sup>33)</sup> 이러한 WCC의 노력들과 함께, 국내에서 NCCK는 ‘통일문제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운동을 지속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2월 29일 NCCK 제 37회 총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서는 ‘88선언’으로 불리며 198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도산소 결의문’과 함께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주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이 ‘88선언’의 핵심은 한국교회의 통일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세 가지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통일의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수용한 것이고, 여기에 인도주의적 원칙과 통일논의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를 원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 ‘88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로 남북교회간의 교류방문, 민족교회공동체형성, 1995년을 평화통일 회년으로 선포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sup>34)</sup>

한편,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1988년 4월 인천에서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를 개최하고, ‘88선언’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그해 11월에도 스위스 글리온에서 ‘제 2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예배와 성례전을 드리고, 성서연구와 교제를 통해 평화통일이 선교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는 NCCK의 ‘88선언’을 지지하였으며, 1995년을 통일회년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sup>35)</sup> 이후 남북교회

---

여야 한다. 3) 남북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접촉, 교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의 교회들이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33)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채수일 편, 『회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5), 469-470; 김명배,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169.

34) 박성준, 위의 글, 470; 김명배, 위의 글, 170.

35) 박성준, 위의 글, 470-471 참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31-33; 김명배, 위의 글, 170.

의 지도자들은 미국 NCC 주선으로 1989년 4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워싱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일본 NCC가 주최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교회의 사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기독교계 진보진영은 1980년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복음주의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였다.<sup>36)</sup>

## 2) 1990년대 ‘평화와 통일’ 운동

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NCCK가 주도한 “남북인간띠잇기대회”와 “평화통일희년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풍부한 물질기반을 매개로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중심의 “남북나눔운동”이다.<sup>37)</sup>

1990년대 들어와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1995년을 평화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통일논의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러한 일환으로 1991년 제 3차 스위스 글리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 기독교 대표들이 남북교회의 서울과 평양 상호 방문, 남북당국간 상호불가침선언 채택촉구, 사업추진 실무기구 설치 등 9개항에 달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95)을 준비하기 위한 5년간의 공동작업계획”에 합의하기도 했다.<sup>38)</sup> 그러나 1990년대 초 희년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신 냉전적 상황, 희년의 시한부 통일론적 성격, 진보진영에 대한 윤리성 시비,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계 등으로 1994년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36) 권혁률, “기독교통일운동의 출발선호, 88년 통일선언”, 114;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226.

37) 조순, 위의 글, 230.

38)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471; 김명배, 위의 글, 171.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회년운동은 회년준비 ‘남북인간띠잇기대회’와 ‘8.15 연합예배’로 진행되었다.<sup>39)</sup>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80년대까지 소수의 교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을 지양하고,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대중의 참여를 견인하려는 행사였다. 이 대회는 1993년 8월 15일 임진각에서 독립문까지 48킬로미터의 구간을 인간 사슬로 이어 남북통일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sup>40)</sup> 6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1993년 인간띠잇기대회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그러나 1994년 전국에 걸친 행사로 계획된 인간띠잇기대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결국 임진각에서 통일기원대회로 축소, 변형된 채 마무리되었고, 1995년 다시 계획된 행사도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같은 인간띠잇기대회의 파행은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의 퇴보에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sup>41)</sup> 이후 1995년부터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회년운동은 1991년에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이행추구 운동으로 축소되었고,<sup>42)</sup>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보진영의 통일논의는 급격한 쇠퇴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한국교회 보수진영도 남북통일운동에 전향적으로 참여한 시기였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보수진영은 정권의 ‘안보 정책’ 테두리 안에서 ‘북한선교’ 운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국가로 종교에 대해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43)</sup> 이러한 북한인식을 지닌 보수진영은 1980년대 말까지

39) 김명배,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172.

40) 김상근, “통일 회년운동의 평가와 전망”, 『기독교사상』 432호(1994. 12); 강문규, “인간띠잇기대회와 통일회년”, 『기독교사상』 428호(1994. 8);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230.

41) 조순, 위의 글, 230.

42) 정성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379.

도 철저한 반공주의와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통일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남북분단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NCKK의 '88선언'이 발표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통일논의와 운동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결성하고, 북한에 대한 철저한 배타적 사고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직접적 선교는 통일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른바 '북한선교론'을 주장하였다.<sup>44)</sup>

더욱이 1990년대 되자,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분단 상황에 있던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한국사회는 '임박한 통일'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보수교회들도 '북한선교론'에 근거한 이전의 통일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대표적인 보수교회 단체인 '한기총'은 산하에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쌀 1만가마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보수교회들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으로 개편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다수의 북한민간지원단체들을 만들어 '북한선교' 운동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보수진영은 여전히 통일운동의 목표를 북한교회의 재건에 두고 있었다. 이들이 추진한 <남북나눔운동>은 가난하고 불쌍한 후진국가인 북한을 선교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이들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북한교회 재건론에 기초한 <남북나눔운동>은 쇠퇴하게 되었다.<sup>45)</sup>

43) 정일오, "북한의 교회와 선교방향", 『기독교사상』(1980,6), 69; 정성한, 앞의 책, 240에서 재인용; 김명배,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172.

44) 김명배, 위의 글, 173.

45) 정성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356-358; 김명배, 위의 글, 173.

결국 2000년대 들어와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IV.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의 역할과 그 한계

##### 1.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의의와 한계

1970년대는 한국교회가 사회참여를 통해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교회의 예언자적 정신을 널리 알린 시기였다. 또한 1980년대 한국교회의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일반 사회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시기이다. 이러한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197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이끈 핵심적 주체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주화 운동의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한국교회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인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 그룹은 직접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고, 운동의 이념적,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독교청년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선봉에서 대중적 투쟁을 선도하였다. 이들은 'NCCK'를 중심으로 'KSCF', 'EYC' 등 기독교 조직을 통하여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sup>46)</sup> 둘째로, 한국교회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부문운동들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담당하였다. 70년대에는 한국사회의 산업화로 인하여 노동, 농민, 도시빈민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의식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청년학생들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에 다

46)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72.

양한 부문별 운동에 헌신했다. 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고문과 용공조작, 강제징집, 호헌조치 등에 폭압적 통치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인권보호운동, 강제징집 철폐운동, 개헌운동, 언론 자유화운동을 펼쳐 당시 민주화 운동들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였다.<sup>47)</sup> 셋째로,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확대되어 1970년대에는 일부의 목회자와 지식인, 그리고 기독교청년학생들이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참여하였던데 반하여, 80년대에는 다수의 교회와 교단, 심지어 보수적 교회와 교단들도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다.<sup>48)</sup> 넷째로, 1980년대는 한국 교회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반외세 자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1982년 고신대 문부식 등에 의해 발생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상징시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반미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사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의 전선이 ‘반외세 자주화와 통일’운동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의 사회참여는 19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반외세 자주화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9)</sup>

이러한 한국교회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민주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에도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1970년대 한국교회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다수의 대중이 포함된 전 교회차원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한계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오히려 다수의 교회와 교단들이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한

47) 김명배, 위의 글, 73.

48)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207; 김명배, 위의 글, 73.

49)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2015, 겨울), 61.

국교회의 사회참여운동은 한국사회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제약했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권 밖의 평가는 80년대 개신교회의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민중운동의 성장에 따른 기독교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강조점을 두어 평가절하한 것으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sup>50)</sup> 셋째로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사회참여는 재야 운동권세력과 연대함으로 한국교회의 다수의 교단들로부터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영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평가는 그 타당성과 진정성이 없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교회들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헌신할 때 친정부적 태도를 보이며 군부독재에 협력하는 반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였다.<sup>51)</sup>

## 2. ‘평화통일’운동의 의의와 한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선교적 과제로 삼은 기독교 진보세력은 점차 민주화를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민주화의 성취는 곧 통일이며 통일의 성취 없이 민주화도 이를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진보세력은 통일운동을 민주화 운동보다 우선적으로 혹은 적어도 민주화운동과 병행하여 전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들은 다

50) 김명배, 위의 책, 33.

51)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74.

음과 같은 의의와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1980년대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분열과 대립, 적대감이 당연시 되던 풍토에서 화해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를 촉발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sup>52)</sup> 둘째로,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남한사회의 변혁과 남북통일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권세력의 통일논의의 독점을 분쇄하고, 통일의논의 장을 민간차원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이다.<sup>53)</sup> 셋째로, 한국교회협의회 “88선언”은 한국 통일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 선언은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노태우 정부의 ‘7.7 통일정책선언’과 1991년 김영삼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넷째로, 1990년대에 들어서 기독교 진보세력에 의해 진행된 “남북인간띠잇기대회”와 “희년통일운동”은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고 남북통일이 결코 요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대중과 일반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54)</sup>

그러나 이상과 같은 1980년대 통일운동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그 이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선언과 소수의 교회와 교회기관의 대표자들의 토론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진행된 “남북인간띠잇기대회”와 “희년통일운동”도 후속조치 없이 일회적 행사로 진행되어 아무런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결국 1990년대 한국교회 진보세력

52) 권혁률, “기독교통일운동의 출발신호, 88년 통일선언”, 114; 조순, 위의 글, 226.

53)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444-447;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226.

54) 조순, 위의 글, 231.

의 통일운동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학생과 재야인사들에 의한 통일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기독교 진보세력이 1990년대 초반까지 누리던 선도적 영향력이 상실되었다.<sup>55)</sup>

한편, 1980년대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통일운동에 있어서 여전히 냉전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한기총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된 “남북나눔운동” 등 통일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통일운동은 식량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은 1990년대에도 여전히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전제한 정북주의적 선교관에 있었다.<sup>56)</sup> 이들은 민족복음화란 명분하에 “북한교회재건론”으로 무장하여 통일 이후, 교파 중심의 실지회복 또는 선교적 선점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57)</sup>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통일운동도 진보진영의 통일운동과 마찬가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다.

## V. 나가는 말

해방 후 한국교회는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시작하여 유신체제의 종식에 공헌하였고,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반

---

55) 이재정, “한국교회 통일운동과 신학적 논의”, 209-210; 고현영, “1990년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전개와 그 성과”, 95; 조순, 위의 글, 232.

56) 고현영, “1990년대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전개와 그 성과”, 96-97; 조순, 위의 글, 232.

57) 임희모, “북한교회 재건론의 문제점”, 평화와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1, 105-112; 이재정, “한국교회 통일운동과 신학적 논의”, 215; 조순, 위의 글, 232.

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완성하였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1970년대 유신체제가 탄생한 후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사회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사회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빠트릴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기독교 지식인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한국사회 민주화를 진전시켜 나갔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진보세력은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선교적 과제로 삼아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갔다. 1982년 고신대 신학생 문부식이 주도하여 일어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상기시켜 반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즉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적대적인 분단 구조아래에서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인식과 군부정권의 배후에 미국의 묵인과 지원이 있었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선이 '반외세 자주화와 평화통일'운동으로 외연이 넓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은 1987년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1987년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걸쳐 활발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시민운동단체들인 경제정의 실천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대 등은 대부분 기독교 지식인들과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민주의식 고양과 시민의식 고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독교신문』 (1987. 6. 28)
-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교회운동』, 서울: 북코리아, 2009.
-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2. 4).
- 김명배,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호(2013).
-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 (2015. 겨울).
- 김인수, 『한국기독교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고현영, “1990년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전개와 그 성과”, 평화와 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1』, 서울: 한들, 2002.
- 권혁률, “기독교통일운동의 출발신호, 88년 통일선언”, 『기독교사상』 498호 (2000.6).
- 문익환, “민주회복과 민족통일”, 씨알의 소리 75호, 1978.
- 문익환, “7.4 공동성명 이후의 민족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민중사, 1990
- 박성준, “1980년대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에 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송기득, “민중신학의 정체,” 『1980년대 한국민중신학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이형기, 『21세기를 행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이형기, 『WCC, Vatican II, WARC 해방신학 및 민중신학이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참여』, 서울: 성지출판사, 1990.
- 연규홍,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정성환,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 19, 서울: 기사연, 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2, 서울: 민중사, 19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VI, VII, VIII』,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개헌과 민주화운동』, 서울: 민중사, 1987.

Brown, Robert McAffe., *Theology in a New Key*, Phil: The Westminster Press, 1978.

Gutien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tr, from the Spanish(1971) by sister Caridad India and John Eagleson, Orbis Books, 1973.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 국 문 초 록 •

---

한국 기독교인들은 1970년대 유신체제가 탄생한 후,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사회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사회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기독교 지식인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몇몇 부문운동들에서는 그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선교적 과제로 삼은 기독교 진보세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진보세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참여 방식에 있어서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 유형의 패러다임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주제어:**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 인권, 평화, 통일

---